

나라의 수립화, 원림화 실현에 이바지할 귀중한 재부

강원도 양묘장 준공식 진행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길 이 세상에 떠오르고있는 강원도에 대규모의 나무모생산지지가 일떠섰다.

은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함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원도생장조자물담배 지력경쟁, 간고분류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수십정보의 면적에 수지경관온실, 야외재배장, 원형삼목장, 경기질생산장, 종자선별 및 파종장을 비롯한 나무모생산구역과 관리정사, 종합편의시설, 살림집 등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였다.

나무모재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할수 있는 통합조종체계가 구축된것을 비롯하여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양묘장이 완공됨으로써 강원도안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

산으로 전면시킴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훌륭히 완공된 강원도양묘장 준공식이 24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총서와 강원도당위원회 위원장 박정남 총서,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중총서, 관제부, 건설에 기여한 단위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 도안의 당, 정권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근로자들, 양묘장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 한상준총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총서께서 강원도에서 양묘장을 전국 의 본보기, 표본이 될수 있게 꾸미는데 대한 전무적파업을 제시하시고 건설 전 파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구상과 결심이라면 산도 때울고 바다도 때울 불같은 열정을 안고 한사발같이 펼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경쟁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30여개 대상의 건축물과 1만 2,000㎡의 온실건설, 1,000여대의 심비조립을 비롯한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수행함에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건설에 필요한 심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통합생산체계구축과 심비조립, 양묘장의 정상운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먼 후남에도 손색이 없을 현대적인 나무모생산지지로 일떠선 도양묘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신인 내 조국강산을 푸른 숲이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러시기 위해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총서의 세심한 지도와 현명한 명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정제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총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헌 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연설자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총력기, 총대결하여 지역경쟁, 건립불발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명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도양묘장의 종업원들이 당의 온정 속에 마련된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종자준비와 경기질생산에 필요한 원료확보사업을 시기별로 선행시켜 경제적리용가치가 큰 나무모들을 계단식으로 많이 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대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누구나 선진적인 산림과학기술로 끈끈히 무장하며 앞선 나무모 키르기방법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에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시, 군모재양묘장들의 품격기술적도를 높일수 있는 데에 지대적투성에 맞는 좋은 수종의 나무모들을 생산보장하며 심은

나무들의 사용률을 높이는것과 함께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도양묘장을 훌륭히 일떠세운 그 기세, 그 기력으로 원산갈매안관장지구건설과 군민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면시킴수 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총서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림부구전투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양묘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과학적인 작전과 실천은 다수확의 담보

벽성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펼쳐나선 벽성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과학농사방법을 세차게 일떠세우며 논벼재배를 현대적 수확률로 끌어올리고있다.

군안의 협동농장들의 당면한 영농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목표로 내세운 이삭이 지수를 무조건 보장하기 위한 비배관리가 모든 포진들에서 다수확을 낼수 있게 주도세밀한 과학적관리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총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부침방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근본요소는 땅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양 수확고를 최대한 높여내는데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어느날이었다. 군영농장경영위원회 책임 일군의 방은 방길도록 불이 꺼질 줄 몰랐다. 모든 농장일군들이 잠가한 속에서 당면한 영농공정을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문제를 놓고 일면 토론이 진행되고있었다.

지난해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이삭이 지수를 무조건 보장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시작된 리원규기사의 주장이 일군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의 20일동안은 한해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이삭이 지수를 무조건 보장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목표이삭이 지수 확보, 이것은 알곡중수의 기본원리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과학기술적요구를 잘 알고 논물관리자와 비료주기 등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만 진행하면 얼마든지 계획된 목표이삭이 지수를 확보할수 있다. ...

그의 이야기가 남긴 어운은 컸다. 이어 한동철경영위원회장이 일어섰다.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라는것은 우리 당의 요구입니다. 앞으로 20일동안에 수행해야 할 영농목표를 실천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알곡생산성과 결정된다.》

일군들은 저마다 새로운 결의를 다지었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이루어졌다. 특히 비료주기사업을 체계로 주체농법의 요구를 농장일군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이 비롯되어 조직되었다. 그에 따라 일군들은 저마다 새로운 결의를 다지었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이루어졌다.

이 문제를 중시한 경영위원회 일군들은 논물관리사업이 논벼

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진행되도록 작전과 지휘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하는것은 실무적인 문제라 아니라 당정책적요구라는 관점에서 농장기술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응당할 관심을 돌렸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은 농장기사와, 작업반기술원들이 자기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떠밀어주었다. 특히 작업반기술원들이 논벼의 포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기초에서 중간물달리기를 진행할 포진들을 선정해주도록 하였다. 그것도 일군적으로 며칠동안 진행하라는 식이 아니라 품종별로 이진된 상태와 뿌리발육상태를 따져보면서 벼포진마다 중간물달리기를 맡게 하였다.

비료주기 역시 같았다. 작업반 기술원들이 모내기날지와 품종별로 이진된 상태, 비료의 종류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게 비료주는 양을 규정해주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또한 농사의 직접적 담당자인 농장원들이 주체농법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를 관철하는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이들 위해 모든 작업반들에서 매일 아침 20~30분씩 과학기술습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과 농장원들이 그날 자기

가 수행할 영농작업의 과학기술적요구를 잘 알고 그대로 집행하게 되었다.

일군들이 힘을 넣은 또 한가지 문제는 고온피해막이대책이었다. 고온피해를 미리막을수 있게 준비하는에서 알맞은 일군적으로 낮에 물을 뿌렸다가 밤에 다시 대주는 식이 아니라 포진들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간석지논인 경우 낮에 물을 뿌으면 논벼가 얼피해를 입을수 있기때문에 이런 포진들은 밤에 물을 뿌고 낮에 물을 대도록 기술지도를 짜고주기 위한 사업을 비롯없이 하였다.

이 모든 사업을 농장기사와, 작업반기술원들에게 알려주는 식으로가 아니라 경영위원회일군들이 앞세워 예고 일리면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과학농사방법을 세차게 일떠세우며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명할 열의안고 이들은 논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많이 땀과 노력을 기울였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본사기자 전 명 열

리 원 군 에 서

김매기에 힘을 집중하여

비원군의 협동농장들에서 김매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수확률 거두고 있다. 꽃말처럼 알뜰히 가꾸어지있는 포진들에서 농작물들이 푸르싱싱 자라고있다.

뜻깊은 올해의 모내기 할 때가 질적으로 풀리는데 이어 농작물비배관리를 놓고 군영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이 도의할 때였다. 일군들은 저마다 의견을 내 놓았다. 병충해막이와 논물관리, 비료주기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들이었다.

이해 경영위원회장이 자기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다른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김매기를 중시해보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농작물비배관리의 목적도 정보양 수확고를 높이는 데 있다고, 아무리 비료를 많이 주고 논물관리를 잘해도 김매기를 잘하지 못하면

의가 없다고 하면서 한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얼마전 군의 여러 농장포진들을 돌면서 지난 시기의 농작물비배관리경험을 알아보면 그 한가지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해농사에서 알장선 단위들이 모두가 김매기에 특별히 힘을 넣은 사실이었다. 특히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김매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정보양 수확고가 오르내린다고 하면서 서로 부터 시작하여 도모의 포진들로 나오면서 김을 말끔히 했었다. 가을날의 결과는 분분히 밝혀져 있었다.

경영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일군들은 심심히 넘쳐 호응해나섰다. 군에서는 김매기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무슨 일이든지 구체적인 실행과 현실적조건에 맞게 작전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군에서는 김을 한번 돌려보는 기일을 지난 시기보다 앞당겼지만 모이도 그렇다. 일군들은 김매기가 늦게되도록 풀이 더 든다는 우려를 떨쳤다. 특히 낮기온이 올라가고 농작물들이 부패자와 김매기조건이 불리해졌다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더우기는 논벼가 더 많은 군의 실정에 맞게 김매기에 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하였다. 김매기실적을 올릴 방도는 무엇인가.

일군들은 농장들에 내려가 작업반조일군들, 선농군들과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 부림소환

리에 풀을 많이 후지침을 적극 앞세우면 김매기실적을 얼마든지 높일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김매기 기속도를 높이면서도 강풍이포기들의 가을피해를 막는것은 물론 비료이 폭풍 피해 큰물피해도 받지 않게 되어 더욱 좋았다. 방도를 찾아낸 이들은 김매기에 필요한 후지를 비롯하여 중소농기구들을 넉넉히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었다. 일군들은 모든 농장들에서 부림소환을 대한 영안리리를 잘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관리공들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이 후지침을 질적으로 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표준농은 농약을 리용하는 사업을 배합하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일군들은 농약을 리용하여 김매기실적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김매기와 관련한 비료주기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가자들의 반영은 좋았다. 군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모든 농장, 작업반들에서 김매기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이 뛰는것만큼 농장원들의 열의는 높아져 날마다 혁신이 창조되었다. 군의 모든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9월의 대추전장에 알곡중산의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해놓고 몇몇한 모습으로 높이서지고 하면서 김매기실적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춘 열

